

靑 검증 시스템 강화...野 김상곤·조대엽으로 타깃 이동

안경환 자진사퇴·강경화 임명 강행...대치 치달는 청문정국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16일 자진 사퇴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향후 인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야당이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인사 청문회는 여야 전장터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사 난맥이 계속되면서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나서 일단 앞으로 장관 인사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김상곤·조대엽·정현백·유영민·조명준·김영록·송영무·김은경 후보자 등 총 8명이다. 이 중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이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조대엽 후보자는 지명 단계 때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진 데 이어 모교 학생에 대한 '반말 고성' 동영상 공개로 논란을 빚었고,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다 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을 5급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안 후보자를 제외한 다

야당 청문회 공세 높일 듯 법무·산업·보건복지 3곳 후보자 인선 지연 불가피

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흠결이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경환 후보자의 나마로 공석이 된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공석인 3곳의 장관 인선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해 검증 대상의 폭이 배로 늘어나고 검증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게 됐다.

이는 정권 초기 청와대 운영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로 운영돼온 인사추천 방식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에 비해 인사 추천과 검증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넓힐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 초기에 너무나 많은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조카 때는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된 만큼 상설로 가동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치고 대화를 나누며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강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인사추천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장관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기구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 정부수석, 홍보수석(현 국민소통수석)이 고정멤버이고 장관에 따라 수석들의 참석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1~2배수 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를 거쳐 장관 후보자를 내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될 경우 추천받은 후보들을 5~6배수로 만들어 약식검증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통령 보고절차를 거친 뒤 지금까지는 단수 또는 2배수 후보에 대해서만 실시됐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광주시 12개·전남도 10개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건의

**국정자문 기획분과위
지방공약 의견 수렴 회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역 대선공약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 기획분과위원회는 각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약 태스크 회의의 열여 지역공약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146개 지역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정위 기획분과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등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약 태스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선공약 12개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적 가치 규범화와 에너지밸리 조성, 국립심혈관센터 조성, 광주 근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2.0 시대 선언, 한국문화기술 연구원(CT) 설립, 민주·인권 기념파크 및 국립트라우마센터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광주역 '아시아문화 관문 재조성',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 공기산업 활성화 등도 함께 요청했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도 지역민들이 새 정부의 지역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를 전할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했다.

문 실장은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장 유지 및 수리조선 특화산업 조성 등 10개 전남 공약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지역 공약이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하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운영을 건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이수 현재소장 인준 언제 하나 강경화 임명 강행에 국민의당도 반발 모드 '자유투표'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지만 각 당의 입장과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에 부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

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은 인사 문제에 대해 당론 결정 보다는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이어서 인준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권여에서는 호남 기반인 국민의당이 전북 출신의 김 후보자를 결국 인준해주지 않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국민의당이 반발 모드로 전환된 점이 변수다.

여기에 '좌권 상정'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현재소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데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99%... 文대통령 지지도 고공행진 인사 논란 등 약세 불구 전국 83%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3%로 1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0%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으나,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호남지역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해 99%에 달했다. 서울은 80%, 인천·경기는 84%, 대전·세종·충청은 78%, 대구·경북은 76%, 부산·울산·경남은 77% 등으로 긍정 평가가 모두 75%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대 이하에서 90%대 초반, 50대에서 73%, 60대 이상에서 69%로 각각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0%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한국당은 10%,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7%, 바른정당이 5% 등이었다.

이 중 호남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74%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지역 국민의당 지지율은 6%로 5%포인트 하락하며 민주당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목~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특큐슈 298,000원 부터
4일 특큐슈·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특큐슈 3일 498,000원 부터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특큐슈 4일 598,000원 부터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임,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비용 포함 : 1만원, 국내항공 5인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포함사항 : 개인 여행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예약시 : 예약시 계약서(세무서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입 바랍니다. * 경비(입금),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순, 각종 비자(일본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부산 출/도착

*상 품 특 전 : 투본강투어(목공예마을+도자기마을), ICE 커피 한잔, 열대 과일, 발 마사지 60분(발, 손, 노니비누 1개/인)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알링프 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포츠마사지 1시간

*별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경비(\$50/인·5일, \$60/인·6일) ※선착순, 아를 중일 현지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